

보건·복지 ISSUE & FOCUS

Korea Institute for Health
and Social Affairs

ISSN 2092-7117
제 229호 (2014-08) 발행일 : 2014. 02. 28

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

OECD Well-Being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 현황*

우리나라는 남녀의 취업률과 임금 수준에서 양성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

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치와 경제 부문에서 보다 많은 여성 리더를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임

양성 격차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가지고 있는 문제로서 건강 및 주관적인 행복감 등에서 남성들의 웰빙 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



신윤정
인구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

1. 서론

- OECD Better Life Initiative는 「How's Life? 2013: Measuring Well-Being」 보고서를 통해 건강, 교육, 임금과 비임금 노동, 사회 생활 영역에서 웰빙(Well-Being) 지표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서 나타난 양성 격차를 회원국가들 간에 비교 분석하였음
- OECD 회원국들은 웰빙 지표 전반에 걸쳐서 양성 격차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긍정적인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지표 영역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

* 본 고는 'OECD Better Life Initiative(2013). How's Life? 2013: Measuring Well-Being'의 제4장 'Gender differences in well-being: Can women and men have it all?'의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음.

-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 수명(life expectancy)은 길지만 여성이 병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아 건강 수명(Healthy life years)은 양성 간에 비슷하며,
-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학교 성적은 뛰어나지만 더 좋은 직업 기회를 보장해 주는 대학교 전공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,
- 여성 노동 시장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 보다 임금 수준이 더 낮고, 더 많은 시간의 무급 노동을 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최고위층으로 승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

■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률과 임금 수준에 있어서 OECD 국가들 간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양성 격차 양상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성간의 주관적인 행복감 차이에서도 OECD 국가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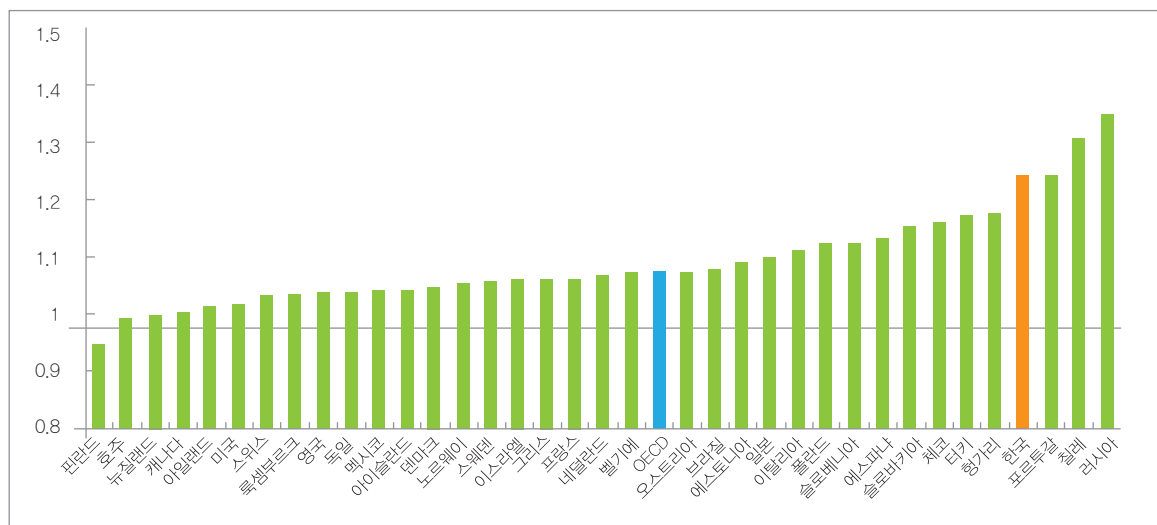
○ 본 고에서는 OECD 웰빙 지표에서 나타난 국내 양성 격차 현황의 특징적인 양상을 OECD 회원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

2. 건강과 교육에 있어서의 양성 격차

■ OECD 회원국 전반에 걸쳐 기대 수명은 2011년 현재 여성(82.8세)이 남성(77.3세)보다 더 높으나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여성(67.3%)이 남성(72.2%)보다 더 낮고, 건강 문제로 인하여 특정한 행동을 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도 여성(23%)이 남성(20%)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

○ 이러한 사실은 OECD 국가 전반에 걸쳐 여성이 남성 보다 오래 살지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오래 생활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음

[그림 1] 건강 문제로 일상 행동을 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남성 비중 대 여성 비중(2012년)



주: 건강 문제로 인하여 일상 행동을 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남성 비중/건강 문제로 인하여 일상 행동을 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여성 비중
 자료: OECD(2013). How's Life 2013: Measuring Well-Being.

○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수명은 여성(84.5세)이 남성(77.7세)보다 더 높고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여성(33.6%)이 남성(41.7%)보다 더 낫다는 측면에서 OECD 국가들과 유사하나,

○ 건강 문제로 인하여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남성(21%)이 여성(19%)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

– 우리나라 남성들이 흡연, 음주,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생활 상의 제약을 여성들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음

■ OECD 국가의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비교하여 학교에서 성적이 더 뛰어나며 특히 읽기 부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고, 수학에서는 약간 떨어지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, 과학 부분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¹⁾

○ 하지만 과학, 기술, 공학, 수학(STEM)을 대학에서 전공으로 선택하고 있는 여학생 비중이 낮아 학교에서 좋은 수행 능력이 더 나은 취업 기회를 보장해 주는 기술 및 공학 전공 영역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○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과 유사하게 전체 STEM 분야 전공 대학생 중 여학생 비중이 2010년 23%으로서 교육(71%)와 보건복지(65%) 부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

3.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에서의 양성 격차

■ OECD 국가 전반에 걸쳐 취업률과 임금 수준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지만 그 격차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

○ 우리나라 역시 취업률과 임금 수준에서 양성 격차가 감소하고 있지만 두 지표에서의 양성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

– 대학 졸업자(tertiary education) 취업률의 양성 격차는 한국이 29% 포인트(2010년)이며, 종일제 고용자 임金的 양성 격차는 37.5%(2011년)로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²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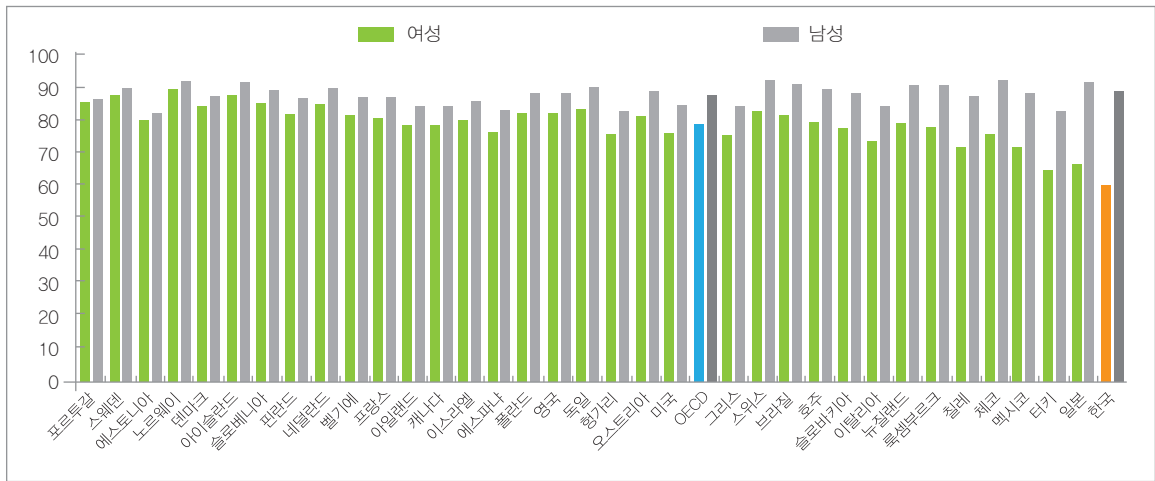
○ 여성들의 임금 수준이 남성보다 낮은 이유는 여성들이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임시직 혹은 시간제로 일하는 경향이 커서 남성들과 비교하여 낮은 임금의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

– 특히 여성들은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거나 승진에서 밀리기 때문에 자녀 출산 및 양육 시기에 임금의 양성 격차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음

1) OECD(2012). Closing the Gender Gap: Act Now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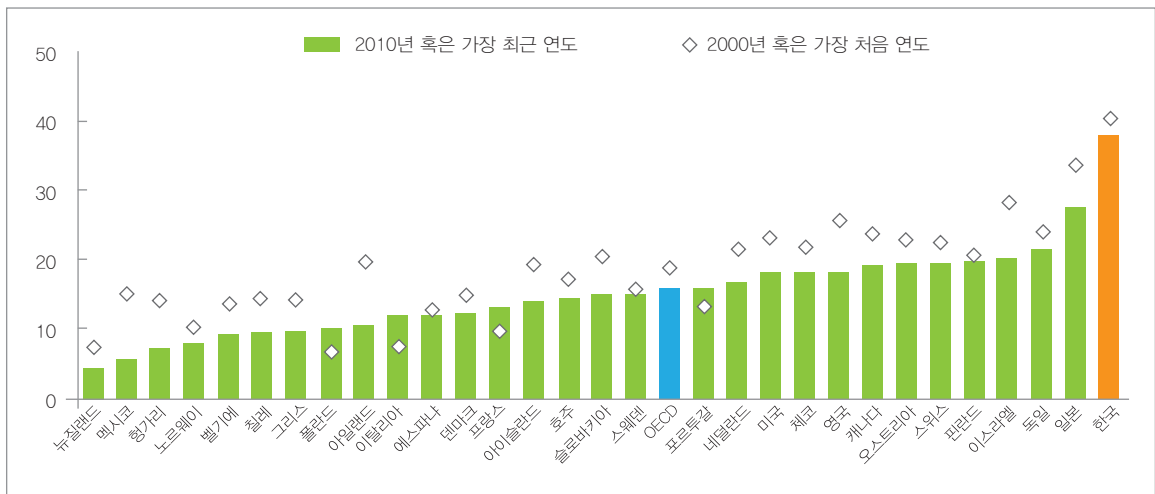
2) 2010년 현재 국내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남성 89.1%, 여성 60.1%이며, 임금의 양성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중위 임금의 차이를 남성의 중위 임금으로 나눈 값임.

[그림 2] OECD 국가에서 대학 졸업자(25~64세)의 취업률 양성 격차(2010년)



자료: OECD(2012), Education at a Glance 2012; OECD(2013), How's Life 2013: Measuring Well-Being에서 재구성

[그림 3] OECD 국가에서 종일제 고용자 임금의 양성 격차(2000년, 2010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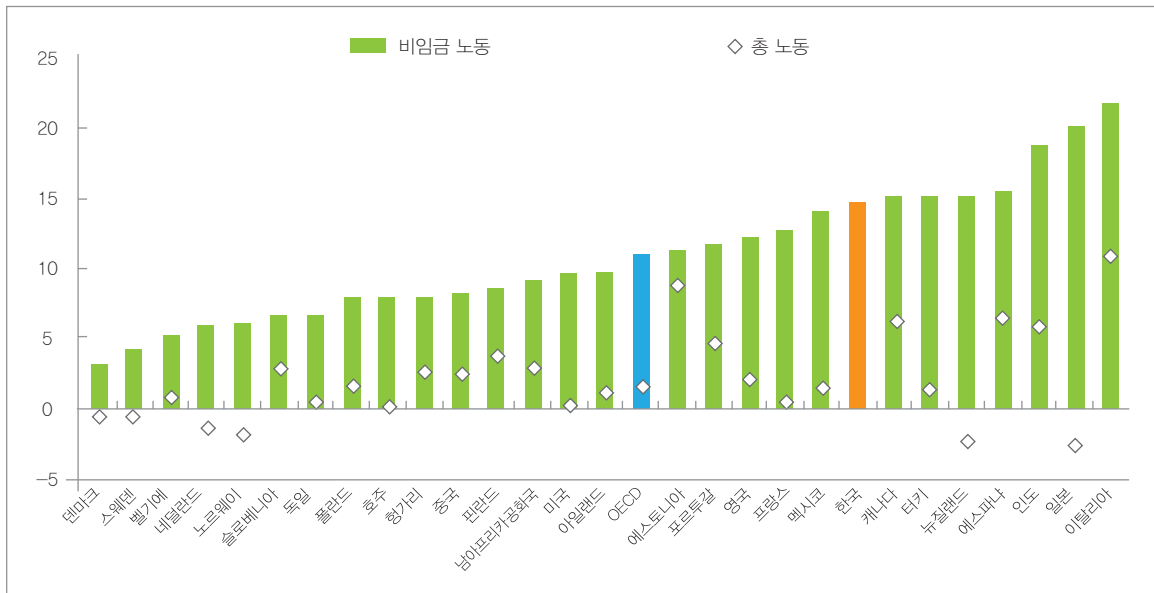


주: 임금의 양성격차는 남성 중위 임금과 여성의 중위 임금의 차이를 남성의 중위 임금으로 나눈 값임

자료: OECD(2013), Online OECD Employment Database; OECD(2013), How's Life 2013: Measuring Well-Being 에서 재구성함

-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유급 노동 시장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시간의 가사를 맡고 있어 유급 노동 시간과 무급 노동 시간을 합한 전체 노동 시간은 여성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- OECD 평균적으로 여성은 주당 평균 23.8시간의 임금 노동, 31.9시간의 비임금 노동을 하는데 반해, 남성은 주당 평균 33.1시간의 임금 노동, 21시간의 비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음
- 한국은 여성(28.6시간)이 남성(38.6시간)에 비해 주당 임금 노동 시간은 10시간 더 짧으나 비임금 노동 시간은 여성(31.3시간)이 남성(16.8시간)보다 14.5시간 더 길어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이 4.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‘시간’은 ‘재화’와 마찬가지로 희소 자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의 비임금 노동을 하는 것은 여가의 감소를 가져와 여성들의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

[그림 4] OECD 국가의 비임금 노동 시간과 총 노동 시간에서의 양성 격차



주: 총 노동 시간은 비임금노동시간과 임금노동시간을 합한 시간임
 자료: OECD(2013), How's Life 2013: Measuring Well-Being.

- OECD 회원국에서 양성 간의 시간 사용을 지난 10년간의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사일과 자녀 돌봄 시간은 과거에 비해 남녀 간에 균등한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음
 - 10년 전과 비교하여 여성은 유급 노동에 1시간 더 사용하게 된 반면 무급 노동에는 2.6시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남성은 유급 노동 시간이 4.5시간 감소하고 무급 노동 시간은 2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
 - 여성의 무급 노동 시간이 감소한 이유는 가사 일을 더 많이 '아웃 소싱' 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예를 들어 조리된 음식의 구매, 보육 서비스 이용, 가사 도우미 활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임
 - OECD 국가 전반에 걸쳐 남녀의 임금 노동 시간과 비임금 노동 시간 사용의 시계열 변화에서 국가마다 서로 다른 차이가 감지되고 있음
 - 각 국가마다 남녀의 성 역할에서 서로 다른 변화가 나타났으며, 특히 육아 휴직을 비롯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발전하였기 때문임
- 가사와 육아 활동을 양성 간에 불평등하게 공유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성들의 웰빙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
 - 첫째, 과도한 가사 노동에 대한 책임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와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적인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 양성 불평등을 강화 시킬 수 있음
 - 둘째, 직장 생활을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이중고로 인한 과도한 노동 부담은 시간 결핍과 스트레스를 가져와서 여성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

○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‘시간 빈곤(Time poverty)율’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. 특히 자녀를 가진 성인의 경우 시간 빈곤율은 두 배로 증가하며 여성이 남성 보다 더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³⁾

4. 사회 생활에서의 양성 격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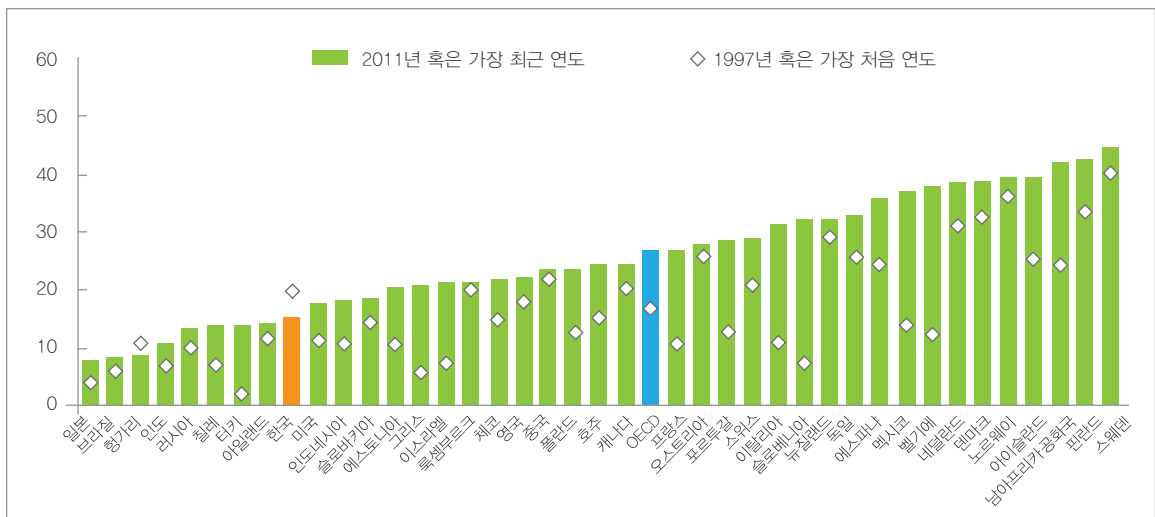
■ 2011년 현재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국회의원 의석의 27%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 15년 전의 17%와 비교하여 약 10% 포인트 정도 증가하였음

○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국회에서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5.6%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, 1997년 20.1%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과거보다 오히려 정치 부문에서 여성 대표성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

○ 여성의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도적인 특성, 문화적인 요인, 사회 경제적 요인이 지적되고 있으며, 특히 여성 노동 시장 참여율과 여성의 정치적인 대표성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

-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각 정당이 뽑을 수 있는 여성 후보자의 풀(pool)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북구 유럽에서는 여성 정치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-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이 정치 부문에서 여성 대표성이 낮은 것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

[그림 5] OECD 국가의 국회의원 의석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(1997년, 2011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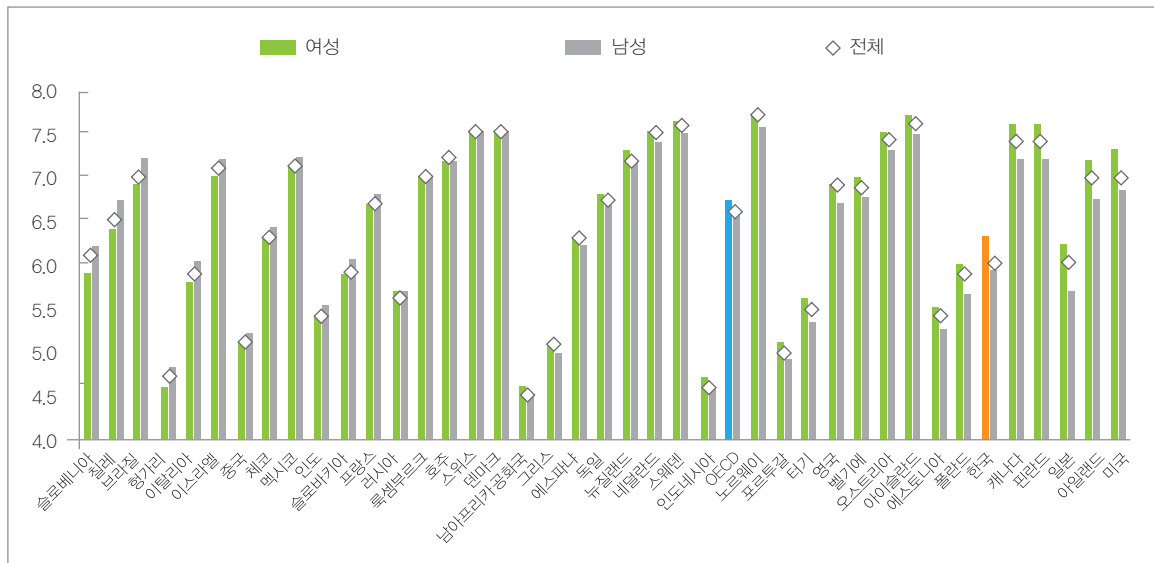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OECD(2013). How's Life 2013: Measuring Well-Being.

3) 시간 빈곤(Time poverty)은 임금 노동 시간과 비임금 노동 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난 후 여가와 레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개념임. '시간 빈곤자'는 자유 재량 혹은 여가 시간(개인유지시간, 임금 노동, 비임금노동 시간을 제외한 총 가능한 시간)이 전국 중위 수준의 60% 미만인 자를 말함

- OECD 국가 대부분에서 밤에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낮게 나타나며 이러한 양성 격차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 - 2012년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중(55%)이 OECD 평균(61%) 보다 낮으며 양성 간의 격차는 OECD 평균(18%)보다 우리나라에서 높게(24%) 나타나고 있음
- OECD 국가 전반에 걸쳐 주관적인 행복감에서 양성 격차는 크게 발견되고 있지 않은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주관적인 행복감에서 남성(5.9점)이 여성(6.3점)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⁴⁾
 - 긍정적인 기분이 부정적인 기분을 상회하는 정도(affect balance)는 OECD 국가 전반에 걸쳐 남성(81.8%)이 여성(77.6%)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, 우리나라는 남성(82.5%)과 여성(82.6%)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
 - 이러한 결과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인 행복감이 더 낮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
 - 국내 남성들의 낮은 주관적인 행복감은 건강 문제로 인해 특정한 행동을 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남성이 높다는 것과 연관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봄

[그림 6] OECD 국가의 주관적인 행복감에서의 양성 격차(2012년)



자료: OECD(2013), How's Life 2013: Measuring Well-Being.

4) Cantril Ladder 측정 방식에 따라 주관적인 행복감이 최저 0점부터 최고 10점 사이에서 조사 되었음(Gallup World Poll, 2012).

5. 시사점 및 정책 대안

- 우리나라는 취업률과 임금 수준에서 양성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노동 시장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
 - 여성 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, 보육 서비스 등 자녀 돌봄 지원, 일과 가정 생활 양립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여성의 취업률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
- 정치와 경제 부문에서 보다 많은 여성 리더를 배출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대표성을 증진해야 할 것임
 -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하여 여성들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전공 분야에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
- 양성 격차로 인한 문제는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남성들의 웰빙 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
 - 남성들이 건강상 이유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서 제약을 갖는 경우가 더 많고 주관적인 행복감도 낮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남성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감소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
- OECD Better Life Initiative에서 양성 격차를 비교 분석하는 19개의 지표 중 7개 지표는 한국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국내 양성 격차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다양한 성인지적인 데이터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
 - 특히 빈곤율, 돌봄 노동, 가정 폭력 등에서 양성 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보다 풍부한 자료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